

# ‘대량 득점’ 슈퍼 타이거즈... 1위 지켰다

### KIA, 5연속 두자릿수 득점 ‘KBO 신기록’... 金 7연패 탈출



1위 자리를 지켜낸 ‘메가 타이거즈’였다.

KIA 타이거즈는 지난 1일 잠실 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경기에서 10-4 승리를 거두며, 올 시즌 10승을 시작으로 50승까지 가장 먼저 찍은 팀이 됐다.

또 KIA는 이날 경기를 통해 5경기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이라는 KBO 신기록을 남기게 됐다. 앞서 롯데 자이언츠(2015년 5월 22~26일)와 NC 다이노스(2015년 9월 13~18일)가 4경기 연속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한 적이 있다.

무엇보다 ‘반전’이 있는 기록이라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

전날 ‘9년 차 늦깎이 선발’ 정용운으로 강속구 투수 소사를 겪은 KIA는 이날도 마운드 무계에서는 LG에 밀렸다. 5연승을 위해 KIA에서는 임시 선발 임기준이 마운드에 섰고, LG에서는 ‘좌완 에이스’ 허프가 나섰다.

선발 싸움은 허프의 판정승이었다. 임기준이 4.1이닝 2실점으로 물러나면서 김윤동이 일찍 마운드에 투입되는 등 KIA

의 불펜이 먼저 움직였다. 반면 허프는 7이닝 8피안타 1볼넷 7탈삼진 4실점으로 선발 맞대결에서 완승을 했다.

하지만 결과는 KIA의 10-4 승. 그것도 마지막 9회에 무려 5점을 뽑아내면서 지난 27일 시작된 두 자릿수 득점 행진을 이어 신기록까지 만들었다.

두 자릿수 득점 행진은 시작부터 반전이었다.

KIA는 지난달 25일 NC와의 원정경기에서 나성범에 역전 만루포를 허용하면서 6-9패를 기록, 3연패를 안고 광주로 돌아왔다. 3연패와 3연승으로 두 팀의 희비가 엇갈리면서 지난 4월 14일 시작됐던 KIA의 1위 독주가 중단됐다.

NC와 공동 1위로 한 주를 시작하면서 KIA의 험난한 선두지킴이가 예상됐다. 그러나 양현종이 선발로 나선 27일 KIA 타자들은 장단 14안타로 11점을 뽑아내며 심상치 않은 한 주를 예고했다. 화끈한 타선 지원 속에 양현종이 10승 투수이자 올 시즌 첫 전 구단 상대 승리투수가 됐다.

29일에는 팻딘이 모처럼 한타해 웃었다. KIA 타자들은 1회부터 3점을 뽑아내며 전날 기세를 이었다. 김민식과 서동욱의 홈런 포함 장단 20안타가 터졌고, 김주찬은 사이클링 히트에 홈런 하나 부족한 활약을 하면서 13-4 승을 이끌었다.



1일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17 프로야구 KBO리그’ LG 트윈스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에서 10-4로 승리한 KIA 선수들이 하이파이브를 하며 기쁨을 나누고 있다. (KIA 타이거즈)

29일에는 팻딘이 모처럼 한타해 웃었다. KIA 타자들은 1회부터 3점을 뽑아내며 전날 기세를 이었다. 김민식과 서동욱의 홈런 포함 장단 20안타가 터졌고, 김주찬은 사이클링 히트에 홈런 하나 부족한 활약을 하면서 13-4 승을 이끌었다.

역대 12번째, 팀 3번째 8타자 연속 안타 기록도 만들어졌다.

그리고 7회말에는 신중길이가 27번째 안타를 때리면서 팀 최다안타 신기록을 갈아치웠고, 20-1로 앞선 8회말에는 김지성이 이날 경기의 29번째 안타였던 2타점 2루타

로 팀 최대 득점 타이거즈(22점)와 KBO 역대 한 경기 최다 안타 타이거즈를 세웠다.

불발은 타격은 금요일 징크스까지 날랐다. 6월 한 달 0.350의 타율을 기록했던 버나디나가 시즌 12호포를 날리는 등 사이

클링 히트에 2루타 하나 빠진 활약으로 10-6 승의 주역이 됐다. 팀은 이날 승리로 금요일 7연패에서 탈출하며 연속 두 자릿수 득점 신기록 작성에 불을 붙일 수 있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야구 또 승부조작? 두산 관계자, 심판에 돈 건네

### “개인 돈 빌려준 것”... 해당 심판 2013년 시즌 후 퇴출 KBO, 3월 상벌위서 논의하고도 비공개... 은폐 의혹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구단의 고위 관계자가 2013년 10월 중순 심판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해당 심판 A씨는 2013년 시즌 후 KBO 리그에서 퇴출당했다.

두산은 구단 관계자가 개인 돈을 A 씨에게 빌려준 것이 구단 공금인 아니었다면서 “현재 정확한 사실을 확인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지난해 승부조작으로 용역을 맡은 한국 야구위원회(KBO)는 “심판 A 씨의 개인 갈취일 뿐 승부·경기 조작과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지난 3월 상벌위원회에서 관련 안건을 논의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아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인터넷 매체인 프레시안은 두산 구단의 최고위 인사가 지난 2013년 10월 중순 심판 A 씨에 현금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2

일 보도했다. 급전이 필요했던 A씨가 밤늦게 두산 구단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고, 이 관계자가 현금 300만 원을 빌려줬다는 것이다.

양해영 KBO 사무총장은 “보도 내용이 맞다”면서 “A씨가 두산 구단뿐만 아니라 여러 야구 선수 출신 선·후배, 야구 해설가 등에게도 빚과 합의금 등 급전을 이유로 개인적으로 갈취한 사실을 확인해 KBO 리그에서 퇴출했다”고 설명했다.

정금조 KBO 클린베이스본센터장은 “지난해 언론 보도로 구단 관계자와 A 씨의 돈거래를 처음으로 알게 된 뒤 조사를 착수했다”면서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급전이 필요하며 두산 구단 고위 관계자에게 연락하고 이 관계자가 돈을 준 것을 확인했다”고 소개했다.

A씨는 이후에도 한 차례 더 두산에 현금 지원을 요청했으나 두산이 거절했다고

정 센터장은 덧붙였다. 보도로 3년 전 사건이 다시 드러나게 된 것에 부담을 느낀 A씨는 지난해 말 정 센터장을 찾아 관련 사실을 털어냈다고 한다.

정 센터장에 따르면, A씨는 “여러 빛이 있어 야구인 등에게 급전을 빌린 건 사실”이라며 “승부·경기 조작과는 전혀 무관하고 개인적으로 돈을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KBO는 A씨의 말을 들은 뒤 각 구단 전·현직 관계자와 심판들을 모두 불러 급전 관계 여부를 조사했다. 또 두산 구단 관계자가 A 씨에게 돈을 건넨 시점에서의 승부조작 여부를 개고자 경기도 모니터링했다고 KBO는 덧붙였다.

KBO는 지난 3월 28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현금거래에 대가성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두산 관계자를 ‘개인 제재’하는 선에서 사건을 매듭지었다. 이 과정에서 야구 내부 관계자끼리 현금 거래가 엄격한 금지 사안이었는데도 이를 공표하지 않아 사실을 확인하고도 은폐하려 했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연합뉴스



1일 오전 광주 무등산 장불재에서 2017 한국청소년 오지탐사대원들이 훈련 중 휴식시간에 재미난 자세로 사진촬영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나를 검증하고 세상에 당당히 맞서겠다”

### 日 북알프스 등정 앞둔 고교생 ‘드림어’ 무등산서 훈련

‘도전’은 항상 아름답다. 특히, 새롭고 낯선 곳에 대한 동경은 누구에게나 가슴 벅찬 일이다.

여기 미지의 세계로의 탐험을 위해 한걸음 한걸음 준비하는 이들이 있다.

1일 오전 무등산 장불재. 전날 내린 비로 인해 안개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는 가운데 10여명의 남녀학생들이 대피소 앞 낮은 평지에서 텐트를 설치하고 있다.

“10분 안에 설치해야 합니다. 배낭이나 짐들 모두 텐트 안에 넣고 매트 깔고 막영할 준비하세요. 설치가 다 됐으면 해체한 후 배낭에 넣어 정리합니다. 5분 쯤입니다.”

정우연(광주·전남학생산악연맹 이사·49) 탐사대장의 호령에 대원들은 풀어진 장비들을 차곡차곡 배낭에 담는다.

대원들은 일사분란하게 움직인다. 다급한 마음에 실수할 수도 있을 법하지만 산행 중간마다 장비를 설치·해체하는 훈련을 반복하기에 제법 능숙하다.

이들은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이 주관하고 주식회사 풀핑이 후원하는

‘2017 한국청소년 오지탐사대’에 참가하는 고등학교생들로 구성된 ‘드림어(Dreamer) 그룹’으로 오는 24일부터 약 20여일간 세계 산악 오지 중 한곳인 일본 북알프스의 등정과 탐사를 목표로 훈련 중이다.

지난달 6월 서울 도봉 숲속 마을에서 1차 종합훈련을 실시한 후 지리산과 영남 알프스의 2차, 3차훈련에 이어 무등산이 4차 훈련지다.

북알프스 등산을 따라 걸으며 정상등정이 목표인 이들은 오전 7시 막영한 광주 동구 용연동을 출발해 중봉, 장불재를 거쳐 규봉암, 꼬막재로 이동하는 약 20여km의 구간에서 산행 중 발생할 응급 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하는 중이다.

대원들 각자 20~30kg의 배낭을 짊어진다. 배낭 안에는 텐트를 비롯해 짐낭, 식량 등이 들어있다. 무게를 맞추기 위해 성인 주먹보다 큰 돌덩이들도 두서너개씩 넣었다. 산행 기간 동안 오롯이 짊어져야 하기에 체력을 키울겸 훈련에서도 그 무게를 맞췄다.

고등학교생들로 구성된 원정대. 아직 세상 경험이 충분치 않은 나이. 하지만

자신을 검증하고 인생에 대해 당당하게 맞서겠다는 각오들은 뚜렷하다.

지난 2016년 광주·전남등산학교를 수료하는 등 어릴적부터 등산에 흥미를 갖고 있는 허강무(살레시오고 1)군은 “아직 진로에 대해 결정하지 못했는데 탐사를 통해 내 자신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고 하고싶은 일을 결정하고 싶다”며 각오를 드러냈다.

사전여고 3학년 박지윤양은 제9회 전국체전 일반등산 단체전에서 은메달, 2016년 대통령기 전국등산대회에서 여고부 전국 2위를 기록하는 등 발군의 실력자.

부사관이 꿈이라는 박양은 “힘들겠지만 대원들과 함께 견뎌내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고 싶다”며 당찬 포부를 드러냈다.

정우연 탐사대장은 “아무리 훈련량이 많아해도 현장에서 생길 변수 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불상사없이 최대한 안전하게 탐사를 마칠것다”고 말했다.

탐사대는 전북 완주 대둔산에서 5차 훈련을 한 후 오는 15일 서울시장 버스락홀에서 발대식을 마친 후 24일부터 8월 7일까지 약 20여일간의 탐사에 나선다. /김진수기자 jeans@

## 아마 최혜진 ‘지현 천하’ 꺾다

### KLPGA 초청탐산수 14언더 코스레코드 우승

‘될성부른 떡잎’ 최혜진(18·학산여고3년)이 5주 동안 이어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지현 천하’에 마침표를 찍었다.

최혜진은 2일 강원도 평창 버치힐 골프장(파72)에서 열린 KLPGA투어 초청탐산수 용평리조트오픈 최종 라운드에서 9언더파 63타를 쳐 3라운드 합계 14언더파 202타로 김지현(26), 조정민(23)을 1타차로 제치고 우승 트로피를 안았다.

파4홀에서만 이글 2개를 뽑아낸 최혜진은 2015년 고진영(23)이 세운 대회 최스타 기록(203타)도 넘어섰다.

무엇보다 최혜진은 5년 만에 KLPGA투어에서 아마추어 선수 우승을 이뤄 한국골프에 새로운 스타 탄생을 알렸다.

KLPGA투어에서 아마추어 선수 우승은 2012년 김효주(21)의 롯데마트 여자오픈 제패 이후 없었다. /연합뉴스



최혜진은 이번 우승으로 프로 전향을 한다면 올해와 내년 KLPGA투어 전 경기 출전권을 받는다.

만18세가 되는 8월23일이 지나면 프로 전향을 할 수 있는 최혜진은 그러나 아마추어 신분으로 초청을 받은 KLPGA투어 대회를 두어 번 더 출전한 뒤 9월께 프로 전향을 선언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 황재균 대타 2루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데뷔라는 꿈을 이룬 황재균(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이 또 한 번의 장타를 터트리며 깊은 인상을 남겼다.

황재균은 2일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어츠와 방문경기에서 1-1로 맞선 8회 초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대타로 등장했다. 피츠버그 강속구 투수 후안 니카시오와 상대한 황재균은 99마일(시속 159km) 강속구를 커트해가며 풀카운트까지 끌고 간 뒤 97.9마일(시속 158km) 포심 패스트볼을 공략해 2루타를 만들었다.

메이저리그 데뷔전이었던 지난달 29일 콜로라도 로키스전에서 결승 홈런을 터트렸던 황재균은 메이저리그 2호 안타를 2루타로 장식했다.

황재균이 득점의 물꼬를 댄지만, 후속타자 디나도 스펠이 내야 땅볼로 물러나며 샌프란시스코는 득점에 실패했다.

샌프란시스코는 연장 11회 초 2사 2, 3루에서 폭투로 결승점을 얻어 2-1로 승리했다. ‘위기의 끝판왕’ 오승환(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은 올해 첫 홈드를 올렸다. /연합뉴스